

# 가자! 대숲속으로!...4년만의 담양 대나무축제 내일 개막

### 다섯시간 관람천·추석경기장 일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행사 체험 즐기는 관람객 주도형...농·특산물 판매 수익 창출도

4년 만에 열리는 담양 대나무 축제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관방제림과 추석경기장 일원에서 '2023 New Bamboo Festival'이 열린다. 이번 대나무 축제는 '가자, 대숲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대나무 관련 전시와 공연, 체험, 판매, 이벤트 등 다채롭게 준비됐다. 군은 단순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관람객 주도형 축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수익창출형 축제로 꾸러간다는 방침이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만큼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남도민합창공연대회를 비롯해 푸릇푸릇 디지털 경연대회, 전국서예회화대회, 야간EDM 페스티벌, 한국대나무박물관 달빛산책투어 등이 열린다.

관방제림 야간경관과 별빛달빛길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야간 콘텐츠 강화로 낮부터 밤까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축제기간 내내 관방천변에서 대나무 뗏목타기와 대나무 키누체험, 대나무물총만들기, 운수대통솔 담그기, 대나무불 던지기, 연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택배비를 지원한다. 한우 소비촉진 판매행사와 음면 향토음식 판매, 풀뿌리공동체와 함께하는 프리마켓을 추진한다. 이번 축제는 젊은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답게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을 들였다. 군은 전남도립대학교 뷰티아트과가 참여하는 페이스페인팅, 반려동물미용, 비누방향제·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드론기계학과에서는 드론제작 체험, 시뮬레이션 조종체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나무 보부상 현상수배'는 축제장 곳곳에서 미술공연과 더불어 전단지 등을 붙이고 그에 맞는 보부상을 발견하는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장 분위기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해 친환경 플로깅 이벤트도 진행한다. 쓰레기를 주워오는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야간경관 포토존 조성하고 함께 다양한 신규 콘텐츠와 이벤트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새롭게 변모한 '2023 New Bamboo Festival'이 3일부터 관방제림과 추석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대나무 축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시간당 10t 가공...나주에 전국 최대 규모 쌀 종합처리장

### 동강면서 '통합 RPC' 준공식

한 시간에 10t 분량의 정곡(精穀)을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나주에 건립됐다. 나주시는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7일 동강면 '나주시 통합 RPC' 신축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21년 4월 남평·다시·마한·동강농협 RPC가 통합하면서 설립됐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5월 통합RPC를 착공했다. 통합RPC 건립에는 국비 71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43억원 등 보조금 12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10억원이 투입됐다. 통합RPC는 전국 최대 규모 가공 현대화 시설과 쌀 8400t을 수용할 수 있는 벼 건조 저장시설을 갖췄다. 시간당 정곡 10t, 연간 최대 2만t을 생산할 수 있다. 부지 3만6586㎡에 지어진 통합RPC의 건축면적은 3666㎡이다. 통합RPC는 앞으로 나주지역 벼 계약재배를 확대해 농가 판로를 넓히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상만 시의회 의장, 최명수 도의원,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서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



나주 동강면에 최근 지어진 '나주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시간당 정곡 10t, 연간 최대 2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가공 현대화 시설이다. <나주시 제공>

원 전남지원장, 박종택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연간 최대 2만t 쌀 생산 능력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 나주시 통합 RPC 준공은 쌀 농가는 물론 나주 농업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주 쌀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품 쌀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쌀 유통에 모두가 힘을 합쳐가자"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비료, 농자재 등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5억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해 쌀 농가에 추가 지원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하우장성 비탄시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올해 250여 명이 입국, 본격적인 농번기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무기질 비료 인상에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json@kwangju.co.kr

##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오지네 축제'

### 5~6일 이틀간 마당극 등 행사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가 주관하는 '제2회 오지네 축제'가 5~6일 이틀간 나주향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창작 마당극, 과거시합, 차 시음 등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나주향교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축제 기간 제향(석전대제) 공간인 대성전을 개방한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1986년 중요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축제 기간 관복, 제기 등을 전시·공개하고 해설도 제공한다. 유생 인형 토크, 창작 마당극 나주향교를 지킨 김애남, 여성 유도회의 전통차 시음, 배강정 만들

기 등 다채로운 공연·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축제 손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행시 과거시합, 남창동의 줄타기 공연 및 체험 등도 예정돼 있다. 나주시니어클럽 등 지역 연계 기관에서는 장류, 조청, 엿 등을 판매하고 미술협회 작가 전시회, 탄소중립 아해 보부상 등도 운영한다. 사적 제483호인 나주향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 형태를 지닌 조선시대 향교의 전형적인 건축 모범을 보여준다. 교육시설 규모를 보면 성균관 다음으로 크며 오늘날까지 교육과 제사 고유기능을 그대로 간직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굽은 소나무 학교는 나주 향교 콘텐츠사업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오인선 나주향교 전교는 "축제가 나주향교를 알리고 나주를 대표하는 선비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재와 친숙해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10만㎡ 규모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

### 농산물 체험·가공·판매 시설

담양 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일원화하고 체험·가공·교육·판매까지 할 수 있는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담양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방향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실태 등을 분석하고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끌어낸다. 검토 용역은 지역농업네트워크(이사장 김현일)가 맡는다. 이후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이병노 군수와 담당 직원, 지역인 2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건립 방안을 논의했다.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담양읍 일원에 3만평(10만㎡)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



담양군(군수 이병노-가운데)이 지난 27일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방향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담양군 제공>

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곳에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농산물 체험, 가공, 교육, 판매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 예정이다. 사회적 농장과 담양문화관광 시설, 쉼터 등도 마련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담양 농특산물 품질을 높여 부자 농촌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과 다른 사·군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장성군 '쌀값 안정 기여' 논콩 재배 박차

### 농민 100여명 참석 파종 시연회

장성군이 쌀 생산량 조절과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논콩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황룡면 부흥리 일원에서 쌀전업

농, 논콩 재배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콩 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서 농업인들은 '콩 파종 생리기계' 작동 시범에 주목했다. 생리기계를 사용하면 생산비와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군은 참

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기계화 표준 재배 유형에 따라 생리기계 작동 과정을 선배 호평을 얻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과 논타작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쌀전업농,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비롯한 모든 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쌀의 적정 생산과 발자물 자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가 나비대축제 행사장에서 관람객에게 모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함평나비축제장서 채소 모종 15종 무료 제공

### 고추·토마토 등 1인당 5주씩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가 나비대축제 기간에 관람객에게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모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모종 나눔행사는 나비대축제 기간 중 오는 7일까지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함평군에서 새롭게 도입한 품종을 홍보하고, 도시민들에게 가정원과 텃밭 농업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한농원은 고추, 참외, 토마토, 옥수수 등 채소 모종 15종, 5만 주 가량을 관람객들에게 1인당 5주씩 무료로 전달한다. 함평농업기술센터는 행사에 앞서 지역에 적합한 우량 품종을 선정하고 함평군 후계농업경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당 1만 주 내외로 배포했다. 박은하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민들이 일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강진에서 한 달 여행' 참가자 19일까지 모집

### 숙박비 등 하루 경비 15만원 지원

강진군이 '강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하루 최고 15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강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일주일에 한 달가량 강진에 머물며 여행을 하는 사업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강진의 명소를 홍보하는 과제를 하면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다. 하루 숙박비 8만원과 교통비 2만원, 식비 3만원,

체험 활동비 2만원 등 하루 최고 경비는 15만원이다. 여행자보험 가입비와 방역 물품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강진의 대표 농촌체험인 '푸소'에 참여하고 강진의 숨은 명소를 찾아 체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올해 1월1일 현재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작가나 유튜버, 블로거 등이라면 선발될 때 가산점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